

일주론



안양교도소 수계법회
안양교도소 불교위원회장 현성 스님은 5월 21일 안양교도소 대강당에서 전 재소자들에게 뽕과 두유 등을 공양하고 모범 재소자 176명에게 수계했다.



봉축탑 연등정화
은평불교사원연합회장 성운 스님은 5월 9일 은평구청 불심회와 공동 주관으로 은평구청 광장에서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봉축탑 연등정화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문화유적 답사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은 5월 20일 충남 마곡사와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제72차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떠났다.(062)228-9098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13일 실상사에서 '제12회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을 연다.(063)636-5388



정각선원 개원 12주년 법회
국회정각화지원불교신도회장 이해봉 의원은 5월 15일 성수 스님(해동선원 조실)을 초청법사로 국회 정각선원 개원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세계불교교육포럼 참석
금강대학교 성낙총장은 5월 17일~18일 중국 양주불교대학에서 열리는 '세계 불교교육포럼'에 참석, '금강대 불교 교육의 현황'이란 주제로 발제한다.



고교생이 장학금 방과 후 교실에 '희사'

고교 3년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기금으로 써달라며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 지현)에 기탁해 훈훈한 미담거리가 되고 있다(사진).
화제의 주인공들은 경희고 3년생인 유승협, 이민기, 송현민, 오원택 등 네 명. 이들은 그간의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SK그룹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은 5월 9일 장학금 전액을 "우리보다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 달라"며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에 기탁했다. 김주일 기자

“2010 인재불사 비전 성공할 것”
불교아카데미 전우희 2대 이사장 취임



불사에 원력을 가진 출·재가 지도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대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불교계 내 핵심 지도 역량 강화는 결국 인재를 얼마나,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 전통을 당대에 맞게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응용불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일 등은 모두 이를 주도할 전문 인재양성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 3인씩을 육성하고, 각 종단별 교육 종사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포럼을 창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방송교육대학 설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방송교육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기초 작업을 추진한다. 사찰포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찰건축불사 모델과 사찰신도회 NGO활동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5월 11일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전우희 이사장(58, 가은감정평가법인 이사·사진)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이사장은 불교아카데미의 '2010 인재불사 비전'을 통해 구체적인 인재불사 계획을 제시했다.

전 이사장은 "불교아카데미가 발족했던 7년 전에 비해 사회 환경을 급격히 변화하고, 종단이나 불교계 역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 실험의 장을 열어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펼칠 인재

'2010 인재불사 비전'에 따르면 2008년까지 불교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전문

종교간 문화 소통 진작...종교문화연구원 개원



“다양한 종교전통과 문화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들이 지닌 수평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올바른 종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교육할 생각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엔 다시 문을 연 종교문화연구원

최근 서울 하왕십리동에 문을 연 종교문화연구원 이찬수 원장(45·前 강남대 교수·사진).

은 원래 1989년에 20여 년 구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적이 있는 단체다. 그동안 회보 발행, 단행본 출판, 종교 강좌, 명상 교실, 종교 기행 등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오다가, 지난 1994년 활동이 잠정 중단됐었다. 하지만 종교간의 활발한 대화와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데 학계와 종교계의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의기투합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초 경기도 용인의 강남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한 '전직 교수'다. 2003년 교육방송(EBS)의 '플레랑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상 앞에서 절한 것 때문에 학교측에 미운털이 박혔다.

“한국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아직도 부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이 원장은 요즘 2-3곳의 대학 강의와 종교문화연구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종교 간 대화 위원으로 활동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공문화해야 할 주제는 근본주의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 안에 이웃을 함께 담아내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서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종교문화연구원 개원 기념 강연의 주제도 '우리 사회의 근본주의'로 잡았다.

종교문화연구원의 첫 번째 사업은 지난 3일부터 6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대종강좌다.



한국불교대학 중점산사 자매결연

한국(영남)불교대학 대관용사(회주 우희)가 5월 7일 중국 청도의 잠방사와 문화와 학술 등 다각적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을 위해 잠방사에서 방장 명철 스님과 주지 묘연 스님 부주지 묘길 스님, 총무 묘연 스님이 방

서울지방경찰청 나라안녕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원담)은 5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 경승단 총재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월도 스님(서초경찰서 경승) 등 세 명이 서울경찰청장이 수여한 감사패를 받았다.

청주청원사연맹회(회장 각의)는 5월 4일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연합회 고문 보현사 원봉 스님과 회장 각의 스님을 비롯해 남상우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각의 스님은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 참된 불자가 되자"고 발원했다.



전등사 외국인 초청 잔치



강화 전등사(주지 장운)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2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잔치'를 5월 6일 경내에서 개최했다. 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전통무용과 록 밴드 공연을 비롯해 스키리듬 미얀마 네팔 등의 민속 공연도 감상했다.

청주 용화사 어버이날 행사



청주 용화사(주지 각의)는 5월 8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용화사 신도 50여 명은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각의 스님은 "불자들이 더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구 원만사 경로잔치 성료



대구 원만사(주지 법홍)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윤순영 주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잔치에서는 사물놀이 공연과 민요 원만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으로 흥겹게 진행됐다. 법홍 스님은 "경로사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암오행침구술 대특강

덕운큰스님의 비방공개 (3개월완성)

덕운스님은 사암오행침구술 및 승가에 전해오는 침구술을 30여년 연구하신 큰스님으로서 불자들의 건강을 위한 활인공덕의 일환으로 최초로 비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강사 : 사암도인의 침구술을 계승하신 덕운스님
일시 : 2007. 6. 1 - 8. 30 (3개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보시금 : 일반인 - 월100만원
신도증소지자 - 월 50만원
승려증소지자 - 월 30만원
3개월 수료후 수료증 발급
문의 : ☎ 02)3487-2311~3
FAX 02)588-1056
H.P 011-335-9351(담당자)



참고: 동양의학방송국 사이트 무료강좌(토요특강)참조 (www.dytv.c●kr)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7-3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활인정사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옥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함경(장아함·중아함·중일아함·잡아함)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팔리어로 된 5부 니까야 (디카니까야·맛지마니까야·쌍욱따니까야·앙굿따라니까야·쿠타카니까야)가 진정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경사를 갖추고자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일재 : 2007년 6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특강 : 전재성 교수
대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독송지도 : 이미령 박사
장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교재 : 쌍욱따니까야II (5부 니까야)
회비 : 동참회비 월 5만원 (교재제공)
문의 : 02-732-1206 (청년회원 특전)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